



The Real series ipsifly provide questions in previous real test and you can practice as re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2024 학력평가 + 내신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 3개년 기출 모의고사

16회 [학력평가 기출 12회 실전 모의고사 4회]

- 2021~2023 최신 3개년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12회
- 학평 + 내신 대비 3·6·9·11월 [고1] 실전 모의고사 4회
- 모든 선지에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수록한 입체적 해설
- 고난도 문제도 혼자서 학습이 충분한 [문제 해결 꿀팁]
- 회차별 [등급 컷·SPEED 정답 체크표·STUDY 플래너]
- 실전 연습에 꼭 필요한 OMR 카드 제공
- [특별 부록] 국어 문법 총정리

고1 국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수능 시험장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실제 수능 시험지와
비슷한 크기의 문제지와 OMR 카드로
시간을 정해놓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을 검토해 주신 선생님

강현영 오현고등학교	김민규 청원문성고등학교	류주연 하이이이학원(전원)	이다은 오현고등학교	정훈 정훈국어학원
강다연 국어 전문과의	김민규 스파르타학원	박수일 청어람 국어	이석호 이석호국어학원	차환진 버리국어학원(창원)
강성윤 나랏말국어학원	김선우 국어 전문과의	박은정 옹골산국어학원	이세연 오현고등학교	채슬기 국어 전문과의
강원국 한수위 국어	김석용 이상국어교육학원	방유정 해음국어학원	이소녕 창원남고등학교	최우림 국어 전문과의
고대희 고대희국어학원	김성주 국어 전문과의	배민규 창원남고등학교	이수경 국어 전문과의	최정윤 최정윤국어학원
고명훈 나랏말국어학원	김세영 해운대국어학원	백조희 숲술국어학원	이수영 지성학원	최진욱 옥생국어학원
김경숙 케이트예일학원	김신영 오산청날학원	설규환 강남대성학원	이준석 버리국어학원	최창국 최강국어
김경주 김경주국어학원	김종덕 갯 국어	성원철 정성학원	이지유 차준호국어학원	현승엽 나랏말국어학원
김광철 다시국어	김진욱 국어 전문과의	손지원 자이원국어학원	이현옥 인국어학원	홍기환 오현고등학교
김기성 책읽는국어학원	김재민 마산삼성엘리트학원	송문원 지하연학원	이형 이형국어학원	황재영 성자국어학원
김기태 국어의힘	남충현 청아람국어논술	신종수 세종학원	임종수 일성국어전문학원	
김다미 성민국어학원	도담 한방국어학원	안혜지 다이나믹학원	장유진 국어 전문과의	
김태현 제일국어학원	류도환 류도원국어학원	윤희지 마산삼성엘리트학원	장인산 경상고등학교(창원)	

이 책의 디자인과 실린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입시플라이에 있습니다. 무단 복사와 무단 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REAL
ORIGINAL

전국연합학력평가 3개년 기출 모의고사

고 국어

Contents

- [특별 부록] 국어 문법 총정리

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회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01쪽
02회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7쪽
03회	2021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33쪽

II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회	2023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9쪽
05회	2022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65쪽
06회	2021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81쪽

III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7회	2023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97쪽
08회	2022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3쪽
09회	2021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29쪽

IV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회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45쪽
11회	2021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61쪽
12회	2020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77쪽

V [특별 부록] 실전 모의고사

01회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193쪽
02회	2024학년도 6월 학력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209쪽
03회	2024학년도 9월 학력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225쪽
04회	2024학년도 11월 학력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241쪽

● [정답과 해설]

• 별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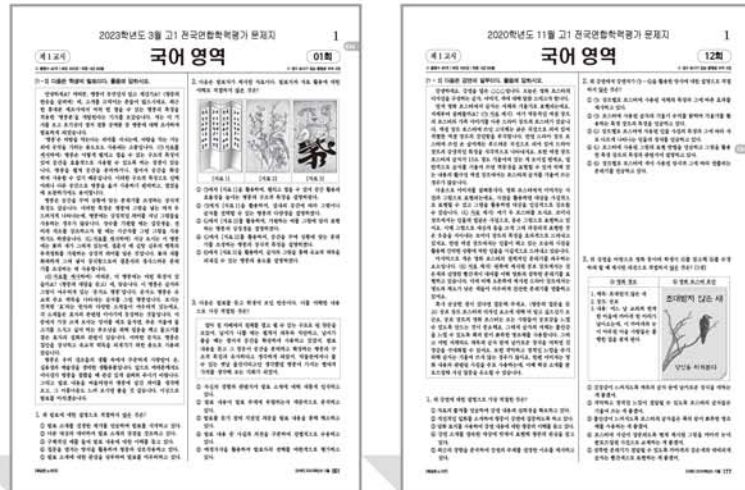
“강력한 해설로 새롭게 출시된 ‘2024 리얼 오리지널’”

흔자서도 학습이 충분하도록 왜 오답과 정답인지 확실히 알려주며, 문제 해결 끝~팁까지 입체적인 해설로 전면 보강했습니다.

01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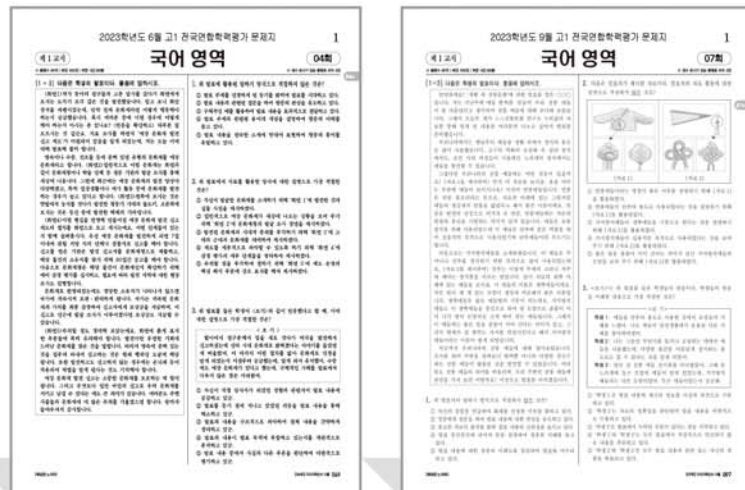
고1 국어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총 16회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1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지의 크기와 느낌을 그대로 실려 실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2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 하고, [80분] 타이머를 작동해 실천력 떨어 보십시오.

02
고 학력평가 + 학교시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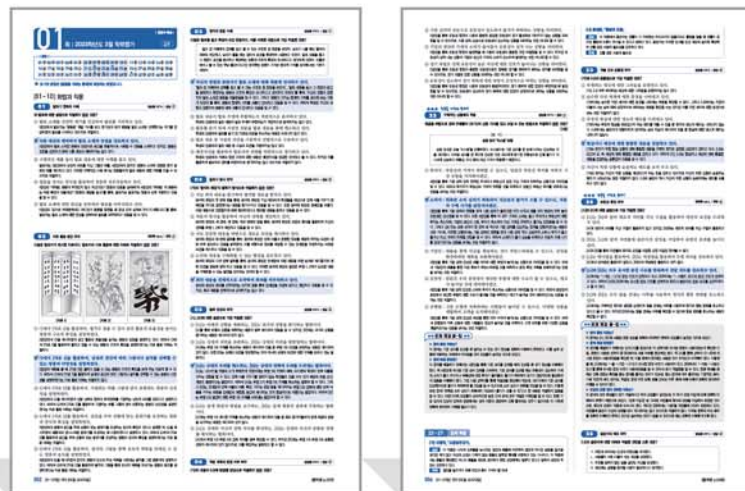
연 4회 [3월·6월·9월·11월] 시행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고1 학교 내신까지 대비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1 월별로 시행되는 학력평가를 대비해 12회분 문제를 풀어 보면 실제 시험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 시험에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하거나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많아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입체적 해설 & 문제 해결 꿀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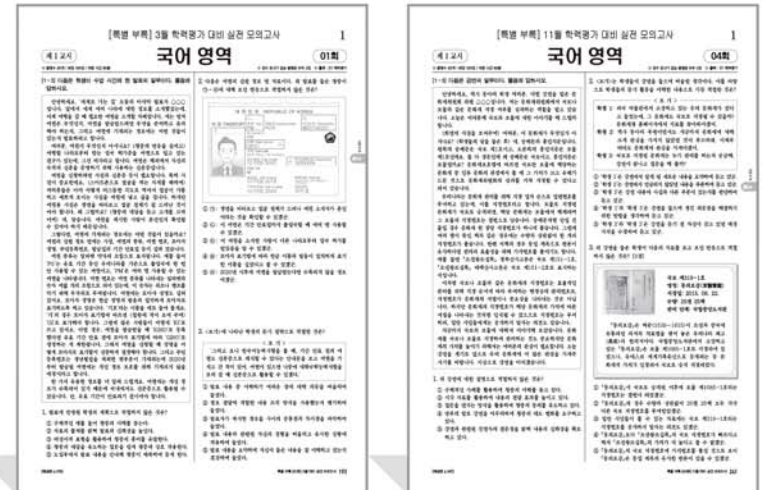
흔자서도 학습이 충분하도록 자세한 [입체적 해설]과 함께 고난도 문제는 문제 해결 끝~팁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 1 선지에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입체적으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해 답당함이 없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2 국어에서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는 많이 틀린 이유와 함께 문제 해결 꿀 팁까지 명쾌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04
3·6·9·11월 [실전 모의고사] 4회

3·6·9·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고1 학교 시험을 대비해 실전 모의고사 4회분을 제공합니다.

- 1 3·6·9·11월 시행되는 학력평가와 1, 2학기 내신을 완벽 대비 할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4회를 제공합니다.
- 2 실전 모의고사는 고1 학력평가 문항 중 우수 문항만을 재구성한 문제로 학력평가와 내신을 대비해 꼭 풀어 봐야 합니다.

05
국어 문법 총정리 & 등급 컷

수능과 내신에서 필수인 국어 핵심 문법 총정리와 문제를 푼 후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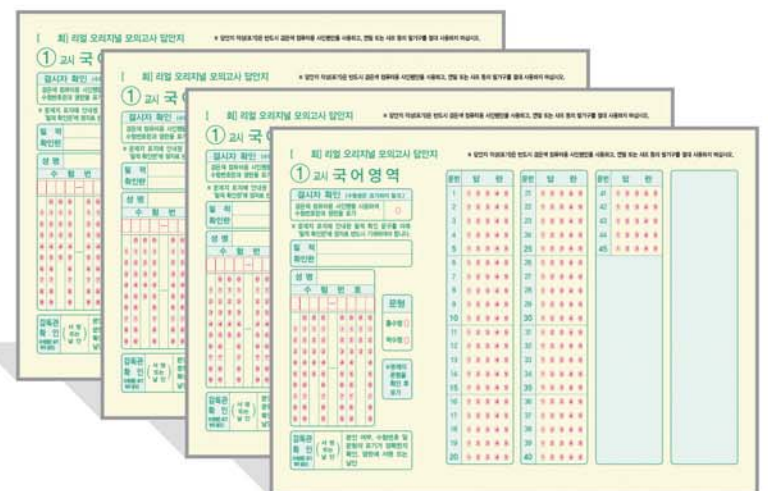
- 1 내신과 수능에서 국어영역 1등급을 위해 문법의 개념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도록 문법 총정리를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 2 문제를 푼 후 바로 자신의 실력과 모의고사에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 문법 총정리는 오려서 휴대할 수 있으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학습하세요.

06
실전과 동일한 OMR 체크카드

정답 마킹을 위한 OMR 체크카드는 실전력을 높여주며 부록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판 뒷부분에 수록되었습니다.

- 1 OMR 체크카드는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모의고사에서 마킹 연습은 또 하나의 실전 연습입니다.
- 2 답을 밀려 썼을 때 교체하는 연습도 중요하며, 추가로 OMR 체크카드가 필요하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TUDY 플래너 & 등급 컷

-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 회분별 기출 문제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 정답 확인 후 점수와 등급을 적고 성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 리얼 오리지널은 실제 수능 시험과 똑같이 학습하는 교재이므로 실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 국어영역 | 시험 개요

문항 수	문항당 배점	문항별 점수 표기	원점수 만점	시험 시간	문항 형태
45문항	2점, 3점	•3점 문항에 점수 표시 •점수 표시 없는 문항 모두 2점	100점	80분	5지 선다형

● 국어영역 | 등급 컷 원점수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틀린 문제	채점 결과		등급 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 회 2023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5	89	81	70	58	47	36	25
02 회 2022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76	68	60	52	44	37	30	23
03 회 2021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0	72	63	55	46	38	30	22
04 회 2023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7	78	68	57	46	36	27	21
05 회 2022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3	73	62	49	37	26	20
06 회 2021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2	85	75	64	52	39	28	20
07 회 2023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6	77	67	57	45	34	26	18
08 회 2022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2	73	63	53	42	32	23	18
09 회 2021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0	82	73	62	49	35	26	19
10 회 2022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0	70	59	45	33	23	17
11 회 2021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79	70	59	46	35	26	20
12 회 2020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3	73	61	47	33	23	18

※ 등급 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 [특별 부록] 실전 모의고사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채점 결과	틀린 문제	시간 부족 문제
01 회 3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02 회 6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03 회 9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04 회 11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REAL
ORIGINAL

국어 문법 총정리

I. 음운 (1) 음운의 개념과 체계

① 음운의 개념

▶ 음운의 개념과 체계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화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추상적인 말소리 -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음.	
분절 음운(음소)	비분절 음운(운소)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 음소라고도 함.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음.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음운. 고저, 강약, 장단이 있음. 현대 국어에는 장단(長短)이 있음.

※ 자음과 모음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조음 기관의 방해를 많이 받으면 자음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 만들어짐.

※ 반모음 :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에 가깝지만 모음처럼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모음이라고 부름.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

Dic. 문법 핵심 개념

▶ 음운 최소 대립쌍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

❶ '달-알'에서의 'ㄷ'과 'ㄹ'

▶ 최소 대립쌍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 최소 대립쌍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로 예를 들어, '달-알'에서의 'ㄷ'과 'ㄹ'을 음운이라 함.

❷ '달-알', '불-벌', '설-설'

②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ㅍ	ㅌ		ㄱ	
	된소리	ㅍ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유음			ㄹ			
비음		ㅁ	ㄴ		ㅇ	

• 파열음 :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파찰음 :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이 모두 있는 소리.

• 마찰음 :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힌 틈 사이로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비음 :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유음 :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던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

Dic. 문법 핵심 개념

▶ 조음 위치・조음 방법 자음이 만들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방법

▶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 예사소리(평음) • 된소리(경음) • 거센소리(격음)

▶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른 분류 • 울림소리(유성음) • 안울림소리(무성음)

③ 국어의 모음 체계

① 단모음 :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이 일정한 모음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입술 모양			
	고모음	ㅣ	ㅜ	ㅡ
	중모음	ㅐ	ㅓ	ㅗ
	저모음	ㅑ	ㅕ	

② 이중 모음 :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반모음 'ㅇ' 또는 'w'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Dic. 문법 핵심 개념

▶ 혀의 앞뒤 위치

• 전설 모음 : 혀의 정점이 입 안의 앞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

• 후설 모음 :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

▶ 혀의 높이

• 고모음(폐모음) :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모음.

• 중모음 :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

• 저모음(개모음) :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의 모양

• 원순 모음 :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 평순 모음 :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 반모음 'ㅇ' 또는 'w' 음성의 성질을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함.

I. 음운 (2) 음운의 변동

①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되는 현상	
	ㄴ	ㅁ, ㅂ, ㅇ으로 바뀌는 현상
자음 동화	비음화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바뀌는 현상 ❶ 심만[심만], 맑는다[단는다], 잡는다[침는다], 받는다[받는다]
	유음화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❶ 달님[달림], 신라[실라], 칼날[칼랄], 권력[결력]
모음 동화		
▶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		
단어 또는 어절에 있어서, 'ㄷ, ㄷ, ㄷ'의 후설 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ㅣ'나 'ㅣ'계(系)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 'ㅐ, ㅑ, ㅓ, ㅕ'로 변하는 현상.		
❶ 아끼[애기], 어미[에미], 고기[과기]		
구개음화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ㅈ'이 되는 현상.		
❶ 굳이[구지], 같이[가치], 달히다[다치다], 붙히다[부치다]		
경음화 (원소리되기)		
▶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❶ 국밥[국뽽], 매통[매통], 출고[출고]		
•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경음화		
❶ 신고[신-고], 감다[감-따]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경음화		
❶ 발달[발랄], 질서[질써], 물질[물썸]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❶ 할 것을 → [할꺼술]		

Dic. 문법 핵심 개념

▶ 음운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높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음

② 탈락 :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음절 말의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❶ 값[값], 뉘[뉘], 뉘[뉘], 뉘[뉘], 뉘[뉘], 뉘[뉘]	
자음 탈락	'ㄹ' 탈락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❶ 멀다 : 머니, 머오 / 높다 : 논, 놀니다, 노오 동글다 : 동그니, 동근, 동그오
	'ㅎ' 탈락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ㅎ'이 'ㄴ'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❶ 그릴다 : 그러니, 그릴, 그러면, 그러오 날은[나은], 많이[마니], 싫어도[시러도]
모음 탈락	'ㅡ' 탈락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❶ 꼬다 : 께, 께다 / 쓰다 : 써, 썼다
	동음 탈락	▶ 용언이 활용할 때 연결된 두 동음 중 뒤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❶ 가-+-아 : 가 / 켜-+-었-+-다 : 켜다

국어 문법 총정리

❶ 첨가 :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ㄴ’ 첨가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 ㄴ’으로 시작될 때,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 아+름→잇몸[인몸] • 코+날→콧날[큰날]
	▶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될 때, ‘ㄴ’이 하나 혹은 둘 첨가되는 경우 ❏ 집안+일→집안일[지반닐] • 물+약→물약[물낙-물낙] 가외+일→가외일[가원닐] • 나무+잎→나뭇잎[나문닐]
반모음 첨가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님. ❏ 피어 → [피어/피어], 되어 → [되어/되어]

Dic. 문법 핵심 개념

- ▶ **사잇소리 현상** :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 밥+길 → 밥길[밥깰] • 등+불 → 등불[등불]

❷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현상

자음 축약	▶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인접한 두 자음이 하나의 음소로 줄어들어 소리 나는 현상. ‘ㄴ, ㄷ, ㄷ, ㄷ, ㄷ’과 ‘ㅇ’이 서로 만나면 ‘ㅃ, ㅌ, ㄷ, ㄷ’(거센소리)이 되는 것 ❏ 놀다[노타], 쌓치[싸치], 울지[울치], 좋고-[조코]
-------	---

Dic. 문법 핵심 개념

- ▶ **모음 축약** :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
• ㅏ + ㅣ → ㅓ : 오+아서→와서
• ㅓ + ㅣ → ㅕ : 두+었다→뒀다
• ㅣ + ㅓ → ㅗ : 가자+어→가져

II. 단어와 품사 (1) 단어와 품사의 특성

▶ 품사의 개념 :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

▶ 품사의 분류

분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단어	불변어	체인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관계언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Dic. 문법 핵심 개념

- ▶ **품사 분류 기준**
❶ **형태 기준에 따른 분류**
• **불변어**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체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 손, 우리, 매우
• **가변어** : 형태가 변하는 단어(용언, 서술격 조사)
❏ 먹다(먹고, 먹니, 먹어서, 먹는다 ...), 예쁘다(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쁩니다 ...),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❷ **기능 기준에 따른 분류**
• **체인** :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임.(명사, 대명사, 수사)
• **용언** :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임.(동사, 형용사)
• **수식언** : 문장에서 주로 다른 성분을 수식함.(관형사, 부사)
• **관계언** : 여러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줌.(조사)
• **독립언** :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임.(감탄사)
❸ **의미 기준에 따른 분류**
• **명사** :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 **대명사** :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
• **수사** : 대상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냄.
• **동사** :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 **형용사** :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관형사** : 주로 체언을 수식함.
• **부사** : 주로 용언, 관형사, 부사 등을 수식함.
• **조사** :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냄.
• **감탄사** :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등을 나타냄.

❹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임.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함.

❶ 명사 :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 범위	보통 명사	▶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 땅, 하늘, 사람, 책
	고유 명사	▶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인명, 지역명, 상호명 등 ❏ 안중근, 부산, 한강
자립성	자립 명사	▶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 사과, 구름
	의존 명사	▶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명사 ❏ 것, 따름, 마리, 쏜, 뻗

❷ 대명사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

지시 대명사	▶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 이것, 그것, 저것
	▶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 여기, 거기, 저기
인칭 대명사	▶ 1인칭 :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 나, 저, 우리, 저희
	▶ 2인칭 : 화자가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 3인칭 :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그이, 저이
미지칭	▶ 모르는 사물, 사람,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 무엇, 누구, 어디(주로 의문문에서 쓰임.)
부정칭	▶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 무엇이트든, 누구든, 어디든
재귀칭	▶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 저, 자기, 당신

❸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	▶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 • 고유어 계열 ❏ 하나, 둘, 셋 • 한자어 계열 ❏ 일, 이, 삼
서수사	▶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 고유어 계열 : ‘-째’를 붙임. ❏ 첫째, 둘째, 셋째 • 한자어 계열 : ‘제’를 붙임. ❏ 제일, 제이, 제삼

❷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❶ 동사 :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자동사	▶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 뛰다, 걷다, 가다, 놀다, 살다
타동사	▶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 잡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주동사	▶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 먹다, 앉다
사동사	▶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 먹이다, 알히다

능동사	▶ 주어가 제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 잡다, 밀다
피동사	▶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 잡히다, 밀리다

❷ 형용사 :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성상 형용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 겹다, 달다, 예쁘다, 낮다
지시 형용사	▶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 ❏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Dic. 문법 핵심 개념

-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기본형에 현재 시제 언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 명정형 어미 ‘-아라/-아라나 청유형 어미 ‘-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러’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국어 문법 총정리

❸ 용언의 활용 : 용언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어간	▶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 용언의 어간 뒤에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들 • 선어말 어미 :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어미로 시제, 높임 등을 나타냄.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음. • 어말 어미 :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어미로, 반드시 있어야 함.

Dic. 문법 핵심 개념

- ▶ **어말 어미의 기능에 따른 분류**
• **종결 어미** : 문장의 끝을 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다. 구나. 니?
• **연결 어미** :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
❏ 바람이 불면, 어서! 우리는 연을 날렸다.
• **전성 어미** :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
❏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❹ 수식언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해당함.

❶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단어

성상 관형사	▶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 ❏ 새 옷, 흰 책, 다른 물건
지시 관형사	▶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 ❏ 이 의사, 그 사람, 저 자전거
수 관형사	▶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 ❏ 두 사람, 연필 다섯 자루, 넷째 딸, 제삼(第三) 회 대회

Dic. 문법 핵심 개념

- ▶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의 품사**
해당 단어의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 그렇지 않고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수 관형사)

❷ 부사 : 용언이나 관형사, 부사, 문장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 부사의 종류

부사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양태 부사	접속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성상 부사	▶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꾸미는 부사로, 의성 부사(소리를 흉내 내는 부사)와 의태 부사(모양을 흉내 내는 부사)가 여기에 속함. ❏ 매우, 가장, 간질히, 깨끗이, 아식아식, 사뿐사뿐
지시 부사	▶ 처소나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의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 ❏ 이리, 그리, 저리
부정 부사	▶ 용언의 앞에 놓여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 ❏ 못, 아니/안

• 문장 부사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양태 부사	▶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 ❏ 다행히, 과연, 설마
접속 부사	▶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Dic. 문법 핵심 개념

- ▶ **부사의 특성**
• 형태 변화를 하지 않음.(불변어)
• 격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음. ❏ 자꾸만, 아직도
•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쓰임.
•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❹ 관계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

▶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주로 명사)을 수식하는 단어

격 조사	▶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 주격 조사(이/가, 게서), 목적격 조사(을/를), 관형격 조사(의), 보격 조사(이/가), 부사격 조사에, 예게, 예서), 서술격 조사(이다), 호격 조사(아, 아)
접속 조사	▶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 와/과, 하고, (이)랑

보조사	▶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 은/는(대조), 만, 뿐(한정, 단독, 유일), 도(역시), 요(상대 높임), 부터(시작, 먼저), 까지(도급, 미침), 조차(역시, 최종), 밖에(한계), 마저(추중, 끝)
-----	---

Dic. 문법 핵심 개념

- ▶ **조사의 특성**
•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함.
•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음.
•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함.
• 조사 결합의 제약 : 대부분의 명사는 거의 모든 조사와 결합될 수 있으나, 일부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는 격 조사와 결합될 때 제약을 받는 일이 있음.

❹ 독립언

문장 속의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갖는 단어.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 독립언은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 쓰일 수 있음.

감탄사	▶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서 독립성이 있는 말 ❏ 앗, 와, 예보, 허허, 이런, 저런, 아이고, 흥, 네
-----	--

II. 단어와 품사 (2) 단어의 짜임

❶ 형태소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의미 단위

▶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체인, 수식언, 독립언)
	의존 형태소	▶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용언의 어간과 어미, 조사, 접사)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체인, 수식언, 독립언, 용언)
	형식 형태소	▶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진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

❷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단,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함.)

■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	▶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 ‘꽃사과’의 ‘사과’, ‘맨입’의 ‘입’, ‘형남’의 ‘형’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어근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함. ❏ ‘꽃사과’의 ‘꽃-’, ‘맨입’의 ‘맨-’, ‘형남’의 ‘-남’

Dic. 문법 핵심 개념

- ▶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
• 국어의 어미와 조사 중에서 조사만을 단어로 포함하게 된 것은, 자립성의 기준에서 보아 어미 앞에는 어간은 자립성이 없지만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은 자립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이처럼 체언이 자립성이 있으므로 조사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과, 또 조사는 어미에 비해 쉽게 앞말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임.
•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처리되므로 다른 의존 형태소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붙임표(~)를 붙이지 않음.

❹ 단어의 형성

단어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파생어	비통사적 합성어

❶ 단일어 :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 땅, 하늘, 밥

❷ 복합어 :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

❸ 합성어 :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통사적 합성어	▶ 단어의 형성 방식이 국어의 문장이나 배열 구조(명사+명사, 관형어+명사, 주어+서술어, 부사어+용언 등)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 쌀밥(쌀+밥 : 명사+명사) / 새해(새+해 : 관형어+명사) 본받다(본+받다 : 목적어+서술어) 위어가다(뒤+→+어+가다 :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 단어의 형성 방식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이나 결합 방식과 같지 않은 합성어 ❏ 늦잠(늦+잠 : 용언의 어간+명사) 놀무르다(놀+→무르다 : 용언의 어간+용언)

국어 영역

01회

제 1 교시

● 문항수 45개 | 배점 100점 | 제한 시간 80분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근 한 휴대폰 제조사에서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병풍의 특징을 적용한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통 공예품 중 병풍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병풍’은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람을 막는 기능 외에 무엇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소품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병풍은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풍을 펼쳐 공간을 분리하거나,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야외나 다른 공간으로 병풍을 옮겨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었을 때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병풍은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적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병풍에 그림을 넣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를 기원할 때는 십장생을, 선비의 지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사군자를 그린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꽃과 새를 화려하게 그려 넣어 장식함으로써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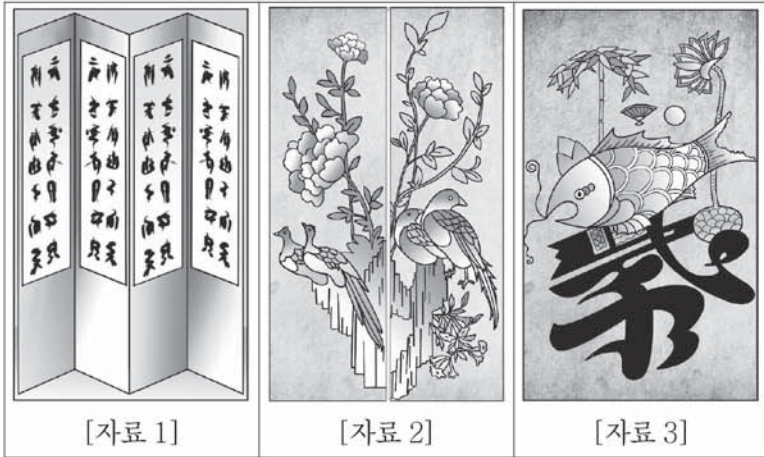
(㉢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 이 병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이 병풍은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져 있는 ‘문자도 병풍’입니다. 문자도 병풍은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그린 병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라는 한자와 다양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각 소재들은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잉어를 예로 들자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는 부모님을 위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은 효자의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도 병풍은 집안을 장식하고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병풍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생활용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병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아름다움도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발표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펼치고 접을 수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②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 ③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원하는 바를 그림에 담아 표현하는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하였다.
- ④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⑤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글자와 그림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길 수 있는 병풍의 용도를 설명하였다.

3. 다음은 발표를 듣고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카페에서 전체를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창문을 보았어. 날씨가 나쁠 때는 펼쳐서 외부와 차단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어. 발표 내용을 듣고 그 창문이 공간을 분리하고 확장하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던 병풍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

- 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 소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발표를 듣기 전에 지냈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어 문법 총정리

㉠ 파생어 :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 파생어	▶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❶ 군침(군+침) / 새파랗다(새+파랗다) / 치춧다(치+춧다)
접미 파생어	▶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❶ 구경꾼(구경+꾼) / 가르침(가르치+ㅁ : 동사→명사) 웃기다(웃+ㅁ+기+다 : 주동사→사동사)

Dic. 문법 핵심 개념
▶ 다의어(多義語)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
▶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소리는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단어

Ⅱ. 단어와 품사 (3)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① 단어 의미의 유형

- 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 중심적 의미 : 다의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 ➡ 사전에 풀이된 의미를 가운데 첫 번째 의미
 - 주변적 의미 : 다의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
 - ➡ 사전에 풀이된 의미를 가운데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미
- ②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 사전적 의미 :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곧, 사전에 등재된 의미
 - ❶ '산'의 사전적 의미: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
 - 함축적 의미 :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 ❶ '산'의 함축적 의미 : 고향에 대한 그리움, 친취적인 가산, 설의 고난과 역경 등
- ③ 그 외 단어의 의미
 - 사회적 의미 :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로, 여러 단어를 가운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사회적 환경: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등)
 - 정서적 의미 : 화자(필자)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에 대한 공손함 등과 관련되어,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
 - 주제적 의미 :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써 화자(필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 반사적 의미 :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

②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유의 관계	▶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의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됨. 유의 관계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 사이 무리화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 ❶ 가끔-종종-왕왕 / 걱정-근심 / 가난하다-빈곤(貧困)하다-궁핍(窮乏)하다
반의 관계	▶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반의어가 됨. ❶ 소년-소년 / 위-아래
상하 관계	▶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포함하는 단어가 상위어, 포함되는 단어가 하위어임. ❶ 동물-사자 → '동물'이 상위어, '사자'가 하위어 작가-시인 → '작가'가 상위어, '시인'이 하위어

Ⅲ. 문장과 문법 요소 (1) 문장의 성분

① 문장과 문법 단위

어절(語節) → 구(句) → 절(節) → 문장(文章)

▶ 문장 성분 :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

- 주성분 :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 부속 성분 :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관형어, 부사어)
- 독립 성분 : 다른 문장 성분과는 문법적 관계가 없는 문장 성분(독립어)

② 주성분

주어	▶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문장을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무엇이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 '이/가', '께서' 붙어서 나타남. ❶ 동생이 도서관에 간다.(주격 조사 '이'가 붙음) •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❶ 동생만 집에 왔다.(보조사 '만'이 붙음)
서술어	▶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어떠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목적어	▶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무엇이 무엇을 어떠한다.'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성분. • 목적격 조사 '을/를'은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음. ❶ 철수가 (밥을 / 밥 / 밥만) 먹는다.
보어	▶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가운데 주어와 아닌 것. • 보격 조사 '이/가'는 생략될 수도 있고 '이/가'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❶ 그는 대학생이 아니다.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다.

Dic. 문법 핵심 개념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 필수적으로 요구 ❶ 꽃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 ❶ 나는 책을 읽는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 ❶ 나는 과일을 영희에게 주었다.

③ 부속 성분

관형어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관형어의 형태 ① 관형사 ❶ 그녀가 새 옷을 입었다. ② 체언+관형격 조사 '의' ❶ 그녀가 동생의 옷을 입었다.(체언 뒤에 붙는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될 수 있음.) ③ 용언의 관형사형 ❶ 그녀는 예쁜 꽃을 샀다.
부사어	▶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용언 외에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기도 함. ■ 부사어의 종류 • 성분 부사어(문장을 수식함 : 용언 수식, 관형어 수식, 부사어 수식, 체언 수식) • 문장 부사어(문장 수식) / 접속 부사어(문장 접속, 단어 접속)

④ 독립 성분

독립어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 독립어의 형태 • 감탄사 ❶ 아, 달이 밝다. • 체언+호격 조사 ❶ 철수야, 지금 어디 가니?
-----	---

Ⅲ. 문장과 문법 요소 (2) 문장의 짜임

① 출문장과 겹문장

- ① 출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❶ 눈이 온다.
- ②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짐.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음.

안은문장	▶ 전체 문장이 출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 • 종류 : 명사절/관형절/부사절/서술절/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 출문장과 출문장이 이어진 겹문장 • 종류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②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 ① 명사절을 안은문장 :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붙어서 만들어짐.
❶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 ② 관형절을 안은문장 :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ㄴ', '-(으)ㄹ', 'ㄴ-던'이 붙어서 만들어짐.
❶ 이것은 철수가 입을 옷이다. / 이것은 철수가 입던 옷이다.

Dic. 문법 핵심 개념
▶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관형절이 표현하는 시제가 다름. -(으)ㄴ : 과거 또는 현재 -는 : 현재 -(으)ㄹ : 미래 -던 : 과거

- ③ 부사절을 안은문장 :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이', '-게', '-도록' 등이 붙어서 만들어짐.(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함.)
❶ 철수는 내게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 ④ 서술절을 안은문장 :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
 - 문장의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함.
 -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임.

[4~7] (가)는 생태 환경 동아리의 회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회장: 지난 회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 캠페인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캠페인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반려 식물을 키워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반려 식물 모종을 나누어 주고 직접 키워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원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모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부원 1: 예전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 생태 교육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예산으로 반려 식물 모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리 회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쭙어보았더니 선생님께서 그 예산으로 300개 정도의 모종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학생들이 키우기 좋은 반려 식물 세 가지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부원 1: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모종의 수가 우리 학교 학생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부원 2: 그래도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려 식물 키우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모종 300개로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원 1: 말씀을 들어 보니 모종 수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동아리 회장: 그런데 캠페인이 모종 나누어 주기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누어 줄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원 1: 좋은 의견이네요.
부원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반려 식물을 더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회장: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와 함께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반려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모종과 함께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부원 2: 좋은 생각입니다. 모종 나누기 행사 전에 안내문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면 캠페인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회장: 그렇네요. 그럼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한 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먼저 반려 식물은 무엇인지, 반려 식물을 키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히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부원 2: 그다음에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고,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 등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부원 1: 하지만 안내문의 제한된 공간에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나누어 주려는 반려 식물이 세 가지나 되는데, 이 세 가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모두 안내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장: 음, 각각의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QR 코드로 연결해 두면 어떨까요?
부원 1: 그러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겠네요.
부원 2: 그리고 반려 식물을 키우며 수시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동아리 블로그를 안내해도 좋겠어요.
부원 1: 좋은 의견입니다.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을 뜻하는 ‘냥집사’처럼, 식물을 키우며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리 회장: 재미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나)

반려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되어 보세요!

▶ **반려 식물이란?**
생활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식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 **반려 식물을 키우면?**
생명을 키우는 성취감, 정서 안정, 공기 정화의 효과가 있어요.

▶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한다고요?**
☞ <3월 23일 하교 시간, 본관 앞>에서, 원하는 모종을 하나씩 나누어 드려요. (300개 한정)

<유칼립투스>



은은한 향기가 주는
마음의 평화

<아이비>



물만 주면 잘 자라는
공기 청정기

<칼라데아>



풍성한 잎이 전하는
싱그러운 생명감

▶ **반려 식물은 어떻게 키우나요?**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QR 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칼립투스>



<아이비>



<칼라데아>



▶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 동아리 블로그(blog.com/eco△△△)를 찾아 주세요.

생태 환경 동아리 ‘푸른누리’

4. (가)의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회의 내용을 환기하며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②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 ③ 서로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B]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발화이다.
- ② [A]는 상대의 의견을 보완하는, [B]는 상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발화이다.
- ③ [A]는 상대의 우려를 해소하는, [B]는 상대의 견해에 우려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 ④ [A]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는, [B]는 문제 해결의 결과에 주목하는 발화이다.
- ⑤ [A]는 상대와 자신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B]는 상대와 자신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하는 발화이다.

6.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밝히고 있다.
- ② (가)에서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 학생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반려 식물을 키우며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게 돕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동아리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에 따라, (나)의 제목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 (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자료]

최근 반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반려 동물의 경우 이미 동물 학대, 동물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 식물과 관련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 식물은 반려 동물에 비해 존재감이 미약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고, 버려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 ① 반려 식물을 키우기 쉬운 이유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②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려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반려 동물과 구별되는 반려 식물의 장점을 언급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⑤ 반려 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언급하며 정성을 기울여 반려 식물을 키워 줄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추가해야겠어.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 학급 문집에 실고자 함.

[초고]

우리 집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에는 낡고 작은 배달용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다. 아버지는 이 오토바이를 오랜 친구처럼 여기신다. 틈틈이 먼지를 털고, 경적을 빠방 울리기도 하고, 시동도 부르릉 걸어 보시고, 해진 안장을 툭툭 치며 환하게 웃으신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우리 학교는 인자한 미소를 띤 고목들이 오랜 전통을 말해 준다. 운동장을 발밑에 두고 중고등학교 건물이 다정히 서 있는데, 교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이는 옛 시가지의 한적한 플라타너스 길은 운치가 있고 아름답다.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버지의 등 뒤에 꼭 붙어서 오토바이로 급히 등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서 나를 내려 주셨다. 식당 일로 분주한 아침이지만, 내가 교문에 들어설 때까지 플라타너스 가로수 옆에 서 계시다가 어서 들어가라는 손짓을 보내시고 “부릉부릉 부릉” 소리를 내며 돌아서셨다. 그 소리가 어느 오토바이의 것과는 조금 달라서였을까, 옆을 지나치던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고요와 평안을 할퀴지 않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 때 점심시간이 끝나 갈 무렵 운동장 옆 산책길을 걷다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 오토바이만의 음색이 내 마음속에 반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저쪽 관공서 근처에 배달을 다녀오시나 보다. 매일 한두 번은 학교 교문 앞도 지나시나 보다. 아버지는 이 길을 지나실 때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상상해 보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교문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로 향하는 오르막을 오를 때 들려왔던 그 소리는 웬지 내 어깨를 다독다독하는 인사말처럼 느껴졌다. ‘오후도 즐겁게!’, ‘아빠, 지나간다.’, ‘오늘 화창하구나!’…….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에서 든든한 힘을 얻어서 그런지 내겐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는 상상력이 생긴 것 같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으흠” 헛기침 소리에서 ‘너무 늦었구나. 씻고 일찍 자렴.’ 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된 새봄. 아버지께서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다.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8.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며 시작한다.
- ② 의성어를 사용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인상을 부각한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나타낸다.
- ⑤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을 메모한 것이다. ㄱ~ㄴ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처음

· 낯고 작은 오토바이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아버지ㄱ

○ 중간

·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길이 내려다보이는 우리 학교ㄴ

· 오토바이에 나를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셨던 아버지ㄷ

· 학교 산책길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

· 힘든 오토바이 배달로 늘 고단해 하시던 아버지ㄹ

· 오토바이 소리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나의 상상

○ 끝

·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나ㄴ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ㄴ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글의 마지막 문장 뒤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을 때 내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추가하고, 비유를 활용한 표현도 있으면 좋겠어.

- ①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서.
- ②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서.
- ③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교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 ④ 교문 앞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을 오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 ⑤ 중학교를 졸업하여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서랍장을 이제는 열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이나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룬다. 가령 ‘먹다’는 어간 ‘먹-’의 뒤에 어미 ‘-고’, ‘-어’가 각각 결합하여 ‘먹고’, ‘먹어’와 같이 활용한다. 그런데 일부 용언에서는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한다. ‘노는’은 어간 ‘놀-’과 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이고, ‘커’는 어간 ‘크-’와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가 탈락한 경우이다.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구분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이며,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가다’의 활용형인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을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활용형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가신다	가-	-시-	-ㄴ-	-다
가겠고			-겠-	-고
가셨던			-었-	-던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된다. 종결 어미는 ‘가신다’의 ‘-다’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이고, 연결 어미는 ‘가겠고’의 ‘-고’와 같이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그리고 전성 어미는 ‘가셨던’의 ‘-던’과 같이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이다. ‘-던’이나 ‘-(으)ㄴ’, ‘-는’, ‘-(으)ㄹ’ 등은 용언이 관형사처럼, ‘-게’, ‘-도록’ 등은 용언이 부사처럼, ‘-(으)ㄴ’, ‘-기’ 등은 용언이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선어말 어미는 높임이나 시제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활용할 때 어말 어미처럼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위에서 ‘가신다’, ‘가셨던’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의 ‘-ㄴ-’, ‘-겠-’, ‘-었-’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각각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②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있다.
- ③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 ④ 어말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⑤ 선어말 어미는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제 1 교시

● 문항수 45개 | 배점 100점 | 제한 시간 80분

국어 영역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 출처 : 고1 학력평가

01회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세계로 가는 길’ 모둠의 마지막 발표자 ○○○입니다. 앞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었는데, 이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여권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저는 먼저 여권은 무엇인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여행할 나라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증을 여권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비자라고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사진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진이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찍는 자세를 취하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찍어서 얼굴이 가름하고 예쁘게 보이는 사진을 여권에 넣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권용 사진은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잘 드러난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여권을 제시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권의 신원 정보 면에는 사진, 여권의 종류, 여권 번호,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과 기간 만료일 등이 실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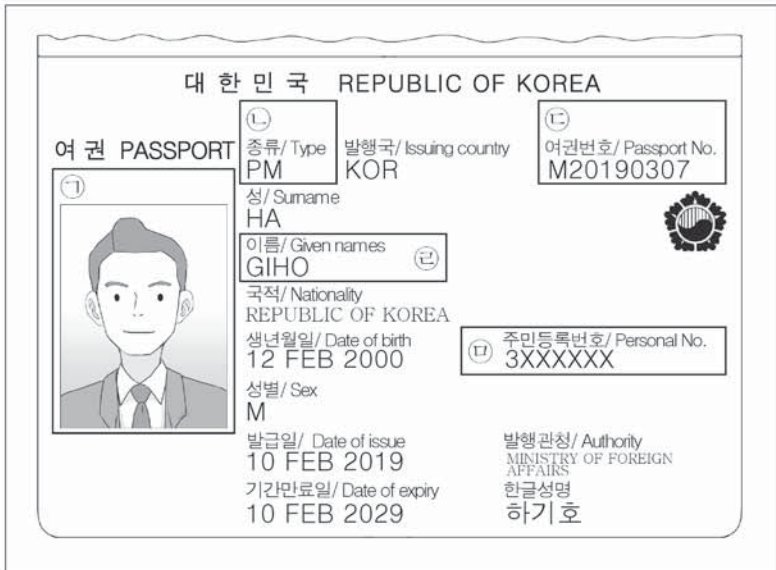
여권 종류는 알파벳 약자의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PS’는 유효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출입국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고, ‘PM’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나타냅니다. 여권 번호는 여권 종류를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 여덟 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여권에는 로마자 성명도 실려 있어요. 로마자 성명은 한글 성명의 발음과 일치하게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호’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 볼게요. ‘기’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칠판에 적어 보여 주며) ‘GI’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권에 ‘KI’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여권을 발급받을 때 ‘KIHO’로 등록했다면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IHO’로 정정하는 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신청할 때 성명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부분이 기재되는데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더 알려 드릴게요. 여권에는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 ②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③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 ④ 청중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 청중과 상호 작용한다.
- ⑤ 도입부에서 발표 내용을 안내해 청중이 예측하며 듣게 한다.

2. 다음은 여권의 신원 정보 면 자료이다.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이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나 여권 소지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 이 여권은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국할 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겠군.
- ③ ㉢: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이름과 발음이 일치하게 표기한 이름을 실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 2020년 이후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수록되지 않을 정보 이겠군.

3.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듣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리고 보니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때, 기간 만료 전의 여권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여권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 여권이 있으면 나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러 갈 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 ① 발표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의문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정보 전달에 적합한 내용 조직 방식을 사용했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③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들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며 들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이 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들었다.

[4~7] (가)는 라디오 대답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폐사한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발견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 연구원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도 고래상어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현재 전 세계 바다에 1억 6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매년 약 800만 톤이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800만 톤이 워낙 큰 수치다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연구원: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다수는 육지나 강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으로 바람이나 물살에 끌려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마다 10만 9400톤 가량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진행자: 육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가운데 바다로 끌려 들어간 플라스틱의 양이 꽤 많았네요.
연구원: 집중호우와 태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외에도 분리수거 후 저개발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도로변 미세 플라스틱,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적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심각하군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규모를 보니 해양 오염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인근 해역의 굴, 담치, 게 등의 어패류를 채집해 내장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139개체 중 97%에서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원: 네, 현재 바다에는 여러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어 플랑크톤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론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 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런던 협약 및 의정서’가 있습니다. 매년 ‘런던 협약 및 런던 의정서 합동 과학 그룹 회의’를 통해 해양 투기 폐기물 평가 지침을 검토하고 연구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 해양 쓰레기 제거 기술 연구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이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원: 해양 오염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라도 덜 쓰기를 당부 드리고, 사용 후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착물을 제거하신 후 세척해서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이제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려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무려 1억 6천만 톤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려왔던 것일까? 일주일간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더니, 패스트푸드점 음식,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빨대를 버리고 있었으며 매일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만 해도 적지 않았다.
매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대략 800만 톤이며,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수는 플랑크톤 수의 180배이다. 이 가운데는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과 파도에 부서져 생긴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보낸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 치약, 세정제의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 마다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또한 방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바다 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어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해양 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화용 식기를 제공하는 매장을 이용하고 개인 컵을 휴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소재가 부착되어 있거나 잔여물이 남은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낮으므로 요구르트, 컵 커피 같은 플라스틱 포장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알루미늄 뚜껑 부분을 제거한 뒤 세척해서 버릴 필요가 있다.

4. <보기>는 진행자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화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언급한 후, 대담의 중심 화제를 소개함으로써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의 규모도 확인하여 청취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도록 해야지. 그 다음, ㉢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약의 성과를 소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겠어. 대담을 끝내기 전에, ㉣ 청취자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후 ㉤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며 마무리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연구원’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② [A]: ‘진행자’는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③ [A]: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④ [B]: ‘연구원’은 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⑤ [B]: ‘진행자’는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독자에게 알려야겠어. …………… ①
○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해야겠어. …………… ②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여 생활 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해야겠어. …………… ③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 독자가 실천해야 할 방법을 명료하게 파악하도록 해야겠어. …………… ④
○ 다른 소재의 재활용률보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음을 지적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⑤

7.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독자에게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마지막에 상황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미를 나타내면 좋습니다.

- ①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데 5초, 쓰이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신소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용한 신소재로 재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
②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닷물 1m³에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모이면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다.
③ 태평양의 동서쪽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인 쓰레기 섬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 주 면적의 2배 크기인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데, 쓰레기 섬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무렵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유엔환경계획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이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치약, 화장품 생산에 쓰였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데기 같은 유기 물질로 원료를 바꾸는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⑤ 미국, 멕시코, 중국 등 9개국 11개 브랜드 생수 259병을 조사한 결과 93%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21개국에서 판매되는 소금을 분석한 결과 90%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01

정답과 해설 |

회 |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1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표기된 문항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01~10] 화법과 작문

01

말하기 전략의 이해

정답률 92% | 정답 2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1문단에서 발표자는 '병풍론' 개발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병풍을 발표 소재로 선택했다는 계기를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발표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2문단에서 발표 소재인 병풍의 장점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병풍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대비하지는 않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발표자는 3문단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그림의 예를, 4문단에서 문자도 병풍의 소재와 관련된 효과 설명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는 청중들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1문단의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펴며)와 4문단의 '여러분, 이 병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를 통해, 발표자는 발표자는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5문단의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를 통해, 발표자는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자료 활용 방안 파악

정답률 89% | 정답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펼치고 접을 수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2문단에서 ㉠을 제시하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병풍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펼치고 접을 수 있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는 자료 활용 이해는 적절하다.
- ②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실내의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2문단의 내용을 볼 때, [자료 1]은 펼치고 접을 수 있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실내의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하였다는 자료 활용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원하는 바를 그림에 담아 표현하는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하였다.
3문단에서 ㉢을 제시하면서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원하는 바를 그림에 담아 표현하는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하였다는 자료 활용 이해는 적절하다.
- ④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3문단에서 병풍이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적 특징도 있다고 설명한 뒤, ㉣을 제시하면서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였다는 자료 활용 이해는 적절하다.
- ⑤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글자와 그림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길 수 있는 병풍의 용도를 설명하였다.
4문단에서 ㉤을 제시하면서 문자도 병풍이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그린 병풍이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글자와 그림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는 병풍의 용도를 설명하였다는 자료 활용 이해는 적절하다.

03

청자의 반응 이해

정답률 94% | 정답 1

다음은 발표를 듣고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 소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전채를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청문을 보았어.', '발표 내용을 듣고 그 청문이 공간 을 분리하고 확장하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 발표 소재인 병풍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풍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 가 되었어.'를 통해, 병풍의 현대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경 험과 관련지어 병풍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③ 발표를 듣기 전에 지냈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를 듣기 전 지냈던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④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⑤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카페의 청문 구조에 대한 내용은 배경지식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 ③ 발표를 듣기 전에 지냈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를 듣기 전 지냈던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④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 ⑤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의 반응에서 카페의 청문 구조에 대한 내용은 배경지식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률 89% | 정답 5

(가)의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회의 내용을 환기하며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동아리 회장의 첫 번째 말을 통해, 동아리 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환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리 회장은 캠페인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동아리 회장의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의 말을 통해, 동아리 회장은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부원 1, 2에게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서로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리 회장의 네 번째 발화를 통해, 동아리 회장은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의견에 대 해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문을 작성하자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동아리 회장의 다섯 번째 발화를 통해, 동아리 회장은 안내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에 대 해 의견을 말씀해 달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아리 회장의 발언은 부원 1, 2에게 논의된 내용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동아리 회장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을 통해 안내문을 작성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지만,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지는 않고 있다.

05

발화 양상의 파악

정답률 93% | 정답 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B]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발화이다.
[A]를 통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B]에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A]는 상대의 의견을 보완하는, [B]는 상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발화이다.
[A]에는 부원 1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부원 1의 의견을 보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B]는 상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발 화이다.
- ③ [A]는 상대의 우려를 해소하는, [B]는 상대의 견해에 우려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A]는, 나누어 줄 모종의 수가 부족하여 걱정이라는 부원 1의 우려에 대해, 300명의 학생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려 식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종 300 개로도 충분하다는 발언이다. 따라서 [A]는 부원 2가 부원 1의 우려를 해소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B]는, 안내문에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 등을 제시하자는 부원 2의 견해에 대해 반려 식 물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문의 제한된 공간에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이다. 따라서 [B] 는 부원 2의 발언에 대한 부원 1의 우려를 드러내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 ④ [A]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는, [B]는 문제 해결의 결과에 주목하는 발화 이다.
[A]에는 부원 1이 제시한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회의 참가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 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A]는 상대와 자신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B]는 상대와 자신의 공통된 견해 를 확인하는 발화이다.
[A]에서 부원 1과 부원 2의 견해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B]에는 부원 1과 부원 2의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발화라고 할 수 없다.

06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률 84% | 정답 3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행사 의 일시와 장소를 밝히고 있다.
(가)에서 부원 2는 안내문에 담을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안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모종 나누기 행사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반려 식 물의 이름,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동아리 회장은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자 부원 1, 2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 세 종류의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학생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를 통해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찾아볼 수 없고, (나)를 통해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에서 반려 식물을 키우며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게 돕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동아리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다.
(가)에서 부원 2는 반려 식물을 키우며 수시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동아리 블로그를 안 내해도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부분에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궁금증이 생기 면?'이라는 항목에 동아리 블로그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에 따라, (나)의 제목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에서 부원 1은 '남집사'라는 용어처럼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제 안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제목에 '식집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07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률 92% | 정답 5

(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신문 자료】
최근 반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반려 동 물의 경우 이미 동물 학대, 동물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 식물과 관련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 식물은 반려 동물에 비해 존재감이 미약해 관리를 소홀히 하 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고, 버려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 ① 반려 식물을 키우기 쉬운 이유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보기>에는 반려 식물을 키우기 쉬운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반려 식물을 키 우기 쉬운 이유를 바탕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완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려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보기>에는 최근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반려 식물에 대한 관 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려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나)의 적 절한 보완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보기>에는 반려 동물과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 려 동물과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보완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반려 동물과 구별되는 반려 식물의 장점을 언급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 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보기>에는 반려 식물의 장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반려 식물의 장점을 언급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완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반려 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언급하며 정성을 기울여 반려 식물을 키워 줄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추가해야겠어.
<보기>의 신문 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반려 동물과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반려 식물이 생명을 잃거나 버려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 정성을 기울여 반려 식물을 키워 줄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08

글쓰기 방법 파악

정답률 74% | 정답 3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며 시작한다.
1문단에서는 오토바이의 먼지를 털고, 경적을 울리고, 시동도 걸어 보고, 해진 안장을 푼듯 치는 아버지의 행동을 나열해 오토바이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의성어를 사용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인상을 부각한다.
학생의 '초고'를 통해 '뽀뽀', '부릉릉', '부릉부릉 부릉릉' 등의 의성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의성어의 활용을 통해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대한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학생의 '초고'를 통해 아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우리 학교의 모습과 교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이는 플라타 너스 길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색채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나타낸다.
2문단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띤 고목들'이라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물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

학생의 '초고'에서는 중학교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에 태워 등교를 시켜주었던 일, 점심시간에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했던 일 등을 제시하여 아버지의 오토 바이에 대한 글쓰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9

글의 내용 생성 방법 이해

정답률 95% | 정답 4

다음은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을 예묘한 것이다. ㄱ~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처음
• 낯고 작은 오토바이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아버지 ㄱ

○ 중간
•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길이 내려다보이는 우리 학교 ㄴ
• 오토바이에 나를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셨던 아버지 ㄷ
• 학교 산책길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 ㄹ
• 힘든 오토바이 배달로 늘 고단해 하신던 아버지 ㅁ
• 오토바이 소리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나의 상상

○ 끝
•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나

- ① ㄱ
1문단의 내용을 통해, 우리 집 마당 창고에 있는 낯고 작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 아버 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ㄴ
2문단의 내용을 통해 학교 교실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보이는 플라타너스 길이 운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ㄷ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늦잠을 잔 '나'를 아침에 급히 오토바이로 학교에 태워다 주시고, 교문에 들어설 때 까지 '나'를 지켜보시다가 돌아서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ㄹ
중간 부분인 2~4문단을 통해 '힘든 오토바이 배달로 늘 고단해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 다. 따라서 'ㄹ'은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지만 초고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ㅁ
5문단을 통해 내게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긴 것 같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조건에 맞게 글쓰기

정답률 93% | 정답 1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글의 마지막 문장 뒤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을 때 내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추가하고, 비유를 활용한 표현도 있으면 좋겠어.

- ①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더 이상들을 수 없게 되어서.
'선생님'의 말을 통해 내용적 조건이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형식적 조건이 비유를 활용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①로, ①의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에서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는 것은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라 할 수 있다.
- ②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 겨서.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신 것에 내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비유 를 활용한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
- ③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교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 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교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 로 볼 수도 있으나, 비유를 활용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교문 앞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을 오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배달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가 아쉬 움을 느낀 이유와 관련성이 있으나, 비유를 활용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중학교를 졸업하여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서랍장을 이제는 열이 볼 수 없 을 것 같아서.
'추억의 서랍장'이라는 비유를 활용한 표현이 나타나지만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

용언의 어간, 어미의 특징 이해

정답률 83% | 정답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이다.
2문단의 '어간이나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룬다.'를 통 해, 용언은 어간의 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어간이나 어미가 하나의 용 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미가 서로 결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②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있다.
2문단의 내용을 통해 어간은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고, 어미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룸을 알 수 있다.
- ③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1문단의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를 통해,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 ②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5문단을 통해 유동성 함정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된 유동성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시중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③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어 유동성이 넘쳐 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5문단을 통해 유동성 함정이 발생했을 때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한 것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넘쳐 나는 상황이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④ 경기 과열로 인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5문단을 통해 유동성 함정이 충분한 유동성으로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경기 과열로 인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⑤ 유동성이 감소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한다. 5문단을 통해 유동성 함정은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일 때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22 **구체적인 상황예의 적용** 정답률 61% | 정답 ②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융 당국 ‘빅스텝’ 단행
금융 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빅스텝이란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 ① 투자자 :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군.
- 4문단을 통해 기준 금리 인하 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 ✔ **소비자 :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겨야겠군.**
- 3문단을 통해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 유동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을 통해 이 경우 가계의 소비는 줄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며, 기업의 생산과 고용, 투자가 축소되어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물가는 안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는 금융 당국이 한 번에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단행하였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시중 금리 역시 상승하여 소비자나 투자자 줄고 물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기업인 :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공장을 확장하러던 계획을 보류해야겠군.
- 3문단을 통해 기준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인이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부담스러워질 것을 예측하고 공장 확장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 ④ 공장장 :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겠군.
- 4문단을 통해 기준 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장장이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줄 것을 예측하고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은행원 : 시중 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해야겠군.
- 3문단을 통해 기준 금리 인상은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행원이 저축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 문제 해결 풀~팁 ★★

- ▶ **많이 틀린 이유는?**
- 이 문제는 기준 금리를 인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기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문제 해결 방법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문단을 통해 기준 금리를 인하할 때와 인상할 때 경기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즉 4문단에 제시된 기준 금리 인하를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인상할 때는 유동성이 감소하여 가계의 소비가 줄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며, 물가가 하락하여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선택지를 통해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보기>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했으므로 물가가 하락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②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①과 ④의 경우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준 금리의 인상과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지문과 관련하여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회에 정확히 정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23~27 갈래 복합

(가) 이원익, ‘고공급자인가’

- 감상** 이 작품은 나라의 신하들을 농사짓는 집안의 종들에 비유하여 집안의 무너진 살림을 일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도 다하지 않는 종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기사이다. 이 작품에서는 종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전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여 상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주인과 종이 가져야 할 자세

(나) 문태준, ‘돌탑과 잔돌’

- 감상**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잔돌이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돌탑을 쌓을 때 잔돌이 없으면 돌탑의 수평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인식을 인간 세상의 삶으로 확장하여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

23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률 85% | 정답 ④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채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부채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 ②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나)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뿐 화자의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구체적 청자로 설정된 상전에게 전하고 있고, (나)는 인간의 삶, 즉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는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글쓴이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24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률 55% | 정답 ④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A]에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이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B]에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이 활용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A]와 [B]를 통해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감정 이입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A]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B]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A]에서 반어법은 활용되지 않았고, [B]에서 역설법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전달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A]에서는 ‘~거든 ~고’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B]에서는 ‘~ 사람도 있고’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A]와 [B]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나 글쓴이의 전달 의도를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A]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로 설정된 상전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서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행동 변화를 호소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 문제 해결 풀~팁 ★★

- ▶ **많이 틀린 이유는?**
- 이 문제는 [A], [B]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문제 해결 방법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A]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표현이 사용된 선택지 중 [B]에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즉 [A]를 통해 선택지 ①~⑤에 제시된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뒤, 이들 중에서 [B]에만 사용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A]에서는 ‘~을 ~거든 ~고’라고 유사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어 있고, [B]에서 ‘~처럼 ~사람도 있고’를 통해 유사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④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 중에는 간혹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용어, 기법 ‘대조적 의미, 반어법, 역설법, 문장 구조 반복, 말을 건네는 어투’ 등에 대해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 **오답인 ②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 이 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②가 적절하다고 하여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 역시 ‘감정 이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정 이입’은 말 그대로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의 감정이 작품에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B]에서는 ‘사람’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 자연물에 글쓴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문학의 주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평소 정확히 이해해 두도록 한다.

25 **글쓴이의 태도 파악** 정답률 80% | 정답 ④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 ㄱ.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한다.
ㄷ.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한다.
ㄹ. 세상에선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ㄴ, ㄹ ⑤ ㄷ, ㄹ
- ㄱ.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나)에서 글쓴이가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한다.**
(나)에서 글쓴이는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공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하는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ㄷ.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한다.
(나)에서 글쓴이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ㄹ. **세상에선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 주는 사람’을 ‘잔돌 같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6 **외적 증거에 따른 구절의 이해** 정답률 71% | 정답 ①

-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고공급자인가,는 고공(중)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중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 **㉠ :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의 ‘우리 맥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는 설의법이 사용된 문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은 예전에는 살림이 이렇지 않았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 :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상마름을 능욕’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의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피로 제 일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 시도 때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돌아쳐 생각하니 땀하거나’는 당파를 결성하는 모습을, ‘헐뜯거니 돕거나’는 서로 다른 당파끼리 당쟁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열두 때 어수선을 낀 것’은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신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돌아켜 생각하니 상전진 탓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가 어지러운 책임이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률 75% | 정답 ④

-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전체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전체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 ① (가)의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가도’는 ‘집안의 법도’를 의미하므로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집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겠군.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잔돌’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은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잔돌이 없으면 돌탑이 수평을 이루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낯잡만 자’는 종과 달리 (나)의 ‘스스로’ 된 꽃은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겠군.
‘낯잡만 자’는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핀 꽃은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 ✔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나)의 ‘서로 엮고 엮히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은 종의 행동을 나타낸 말로, 이를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달리 (나)의 ‘서로 엮고 엮히서’는 큰 돌과 잔돌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므로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크게 기운 집’은 구성 요소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나)의 ‘기우뚱하는 돌탑’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군.
‘크게 기운 집’은 집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우뚱하는 돌탑’은 돌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필요한 큰 돌이나 잔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이는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편 p.009]

28~33 **인문**

(가) 권석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 해제** 이 글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아는 불안감이 생긴다.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또한 어떤 시절 해소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은 성인이 되어 재현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된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주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소개
2문단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
3문단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
4문단	성인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내세운 프로이트의 주장

- (나)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 해제** 이 글은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의식은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으로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인간은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개별화라 한다.
- 주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융의 분석심리학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학 소개
2문단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대한 융의 생각
3문단	융의 개별화 및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28 **서술상 공통점 파악** 정답률 63% | 정답 ②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분트의 심층심리학을 언급하면서, 이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무의식을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참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으로 해석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지는 않고 있다.
- ④ 인간의 정신 질환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정신 질환을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 ⑤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29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률 75% | 정답 ⑤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1문단의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여겼다.
1문단의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프로이트는 원초아가 강할 때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3문단의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3문단의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구분하였다.**
1문단의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를 통해, 프로이트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구분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0	구체적인 자료에의 적용	정답률 63% 정답 ④
-----------	---------------------	-----------------------

(가)의 '프로이트'와 (나)의 '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헤르만 헤세의 연보]

○ 1877 : 기독교인으로서 엄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집안에서 태어남. ㉠

○ 1881 ~ 1886 : 자유분방한 기질로 인해 일찍이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항하여 불안감을 느낌. ㉡

○ 1904 ~ 1913 :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왕성하게 작품 창작을 하며 불안에서 벗어나. ㉢

○ 1916 ~ 1919 :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함. ㉣

○ 1945 ~ 1962 : 성찰적 글쓰기 활동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여생을 보냄. ㉤

○ 1962 : 몬타놀라에서 죽음.

① ㉠ :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아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군.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헤세의 초자아는 발달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② ㉡ : 프로이트는 헤세의 불안감을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장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겠군.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헤세의 불안감은 타고난 자유분방한 기질에서 비롯한 원초아의 요구와 엄한 아버지의 교육으로 내재화된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자아가 이를 조정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융은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겠군.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헤세의 작품 창작은 어린 시절 생겨난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승화'의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나)의 융에 따르면 헤세의 작품 창작 활동은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되어 헤세의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겠군.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보기>에 제시된 헤세의 우울증은 유년기에 느낀 불안감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융에 따르면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되어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므로, 자아와 그림자의 통합은 내면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헤세의 우울증을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이라고 융은 보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 : 융은 헤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으로 보겠군.

(나)의 융에 따르면 헤세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내면이 점점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1	글에 드러난 주장의 공통점 파악	정답률 69% 정답 ⑤
-----------	--------------------------	-----------------------

(가)의 <정신분석이론>과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모두 동의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가)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자아는 의식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정신 요소이다.

(가)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원초아가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집단 무의식은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무의식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를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열등한 자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무의식에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에 제시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통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 제시된 융의 분석심리학을 통해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통합되어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론 모두 정신세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률 71% 정답 ②
-----------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다.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라 할 수 없다.

✔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찾아 나가는 개별화의 과정이다.

㉮은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는 개별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는 과정이다.

㉮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면서, 정신세계를 이루는 정신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므로,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되어 정체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정체성의 실현은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008 고1·3개년 국어 [리얼 오라비들]

33	단어의 사전적 의미	정답률 86% 정답 ②
-----------	-------------------	-----------------------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 ㉢ : 주기적으로 자주 되풀이하여 돌.

'전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이다. '주기적으로 자주 되풀이하여 돌'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순환'이다.

③ ㉣ :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④ ㉤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⑤ ㉥ :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

34~37	현대 소설
--------------	--------------

윤홍길,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엠티지>

감상 이 작품은 윤홍길의 『소단단 가는 길』에 실려 있는 연작소설 중 한 편으로, 하인철이란 인물이 6·25 전쟁 당시 유년 시절의 체험을 고향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엍지 소설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린 '나'의 순진한 시각을 통해 창권이 형의 활약과 몰락의 과정을 전달함으로써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한편 몰락하게 되는 창권이 형의 모습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률 77% 정답 ①
-----------	------------------	-----------------------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야기 내부 인물이 중심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전체의 내화 중 일부로,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창권이 형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와 창권이 형, '나'와 어머니, 창권이 형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야기 내부 인물이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전달하지는 않고 있다.

④ 이야기 외부 서술자가 특정 소재와 관련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회중시계'와 관련한 '나'의 느낌을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의 등장인물인 '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야기 외부 서술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나'이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열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작품 내용의 이해	정답률 81% 정답 ②
-----------	------------------	-----------------------

읽기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나'는 켈기대회가 끝나기 전 친구들과 도중에 나온 적이 있었다.

'나'는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다.

✔ '나는 창권이 형이 켈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다.

이 글에서 '나'는 켈기대회에서 군복 차림의 인물이 연단에 오른 것을 직접 보고 눈에 익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식당에 돌아온 창권이 형이 열 손가락에 봉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연단에 올랐던 인물이 창권이 형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따라서 '나'가 어머니에게 창권이 형이 켈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니다.

③ 창권이 형은 열혈 애국 청년 노릇으로 바빠지게 되자 식당 심부름꾼으로 일할 겨를이 없었다.

창권이 형은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히 붙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④ 창권이 형은 퇴원 후 어머니에게 노골적인 박대를 받던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창권이 형이 퇴원한 뒤 어머니가 그를 '눈엣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으며, 창권이 형은 '눈칫밥이 나 속내에 지내던 어느 날' '마침내 사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⑤ 어머니는 창권이 형이 켈기대회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애국 학도로 행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창권이 형이 쓴 혈서가 켈기대회에서 공개될 때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했고, 어머니는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 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끝까지 여겼다고 했으므로, 어머니는 창권이 형이 켈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행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6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해	정답률 62% 정답 ⑤
-----------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빛나는 교표로는 오히려 창권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창권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은 교표를 통해 은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② 교표가 빛이 날수록 오히려 창권이 형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권이 형은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스스로 '진짜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고, 스스로

로 '가짜배기 나이롱 고등과 학생'이라며 '천연덕스레' '히히거'리며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③ 번뜩이는 교표로 인해 켈기대회에서 창권이 형이 맡는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표는 켈기대회에서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창권이 형을 고등학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 교표 때문에 창권이 형이 켈기대회에서 맡은 역할이 축소되지도 않았다.

④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창권이 형이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창권이 형은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자신의 학력 위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지나치게 새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창권이 형의 학력 위조가 쉽게 탄로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교표'는 창권이 형의 학력을 위장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권이 형은 이런 교표를 '한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광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은, 교표가 너무 번뜩이면 새것으로 보이는 교표가 눈에 띄게 부자연스럽게 보여 창권이 형이 가짜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쉽게 탄로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문제를 가하는 문제!
-----	--------------------

3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률 57% 정답 ⑤
-----------	------------------------	-----------------------

<보기를> 바탕으로 읽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진한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창권이 형은 켈기대회에서 애국 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권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켈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켈기대회가 희화화된다.

① '엠티지'를 보내는 것을 '엠티지 보내기'로 오해한 '나'를 통해 켈기대회가 희화화되는군.

'나'는 어리기 때문에 '엠티지'가 무엇인지 몰라 '엠티지'로 오해한다. 이러한 '나'의 오해는 켈기대회에서 주장되는 비정한 엠티지를 우상화시킨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웃음을 유발한다.

② '좀체 아를 새가 없'는 '손가락'들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증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창권이 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인물임을 엿볼 수 있게 하는군.

켈기대회의 사회자가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창권이 형을 '열혈 애국 청년'으로 소개하므로 창권이 형의 '손가락'들은 애국심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혈서를 쓰느라 그의 손가락이 '좀체 아를 새가 없'다는 것은 창권이 형이 켈기대회에 모인 군중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이용되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③ '고등과 학생 승대를 내고 땡기'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나는군.

창권이 형은 아침 일찍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온다. 국민학교 졸업에 불과한 인물이 켈기대회에서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을 바 권력층이 그에게 고등학생 흉내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난다.

④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권력층에 편승하려는 창권이 형의 부절없는 욕망이 풍자되고 있군.

창권이 형이 '시위대의 선두에' 선 것은 권력층에 편승하여 애국 학도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 욕망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만용'을 부려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는 비극으로 끝남으로써 그의 욕망이 부절없음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된다.

✔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는 전쟁 시기에 애국 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권이 형의 고뇌를 상징하는군.

'나'는 '회중시계'가 창권이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 때'를 '증언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리고 창권이 형은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창권이 형에게 '유일한 전리품'으로 남겨진 '회중시계'가 전쟁 시기에 애국 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권이 형의 고뇌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소재나 구절을 (보기)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의 중심인물인 '창권이 형'의 행동이 지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기)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글의 내용과 (보기)를 관련하여 제시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답인 ⑤의 경우에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중시계'의 의미와 '창권이 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지난번 시제로부터 받은 '회중시계'에 대해 '나'가 창권이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 때'를 '증언하는' 듯하다고 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회중시계'가 전쟁 시기에 애국 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권이 형의 고뇌를 상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의 경우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인물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을 해야 한다.

▶ 오답인 ④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이 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④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글에 제시된 창권이 형의 모습을 (보기)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 글에서 창권이 형이 '시위대의 선두에' 선 이유, '중상을 입'고 창권이 형이 떠나는 의미를 (보기)와 연관하여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보기)를 통해 창권이 형이 권력층에 편승하려는 인물이고, 몰락하게 되는 창권이 형을 통해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한다는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④의 선택지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8~42	기술
--------------	-----------

이준엽,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해제 이 글은 OLED 소자를 사용한 스마트폰에서 화면 내부 기판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하여

[문제편 p.013]

아외 시인성을 개선을 위해 적용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외 시인성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스마트폰에는 아외 시인성 개선을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하는데, 명암비는 흰색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외부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명암비를 높이면 아외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데, OLED 소자를 사용한 스마트폰에서는 편광판과 위상지연필름을 활용하여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줄임으로써 스마트폰의 아외 시인성을 높인다.	
주제 아외 시인성을 개선을 위해 적용된 기술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아외 시인성 개선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의문 제기	
2문단 명암비의 이해	
3문단 명암비의 종류-임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	
4문단 OLED 스마트폰에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는 이유	
5문단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 이해	
6문단 OLED 스마트폰에서 아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	

★★★	문제를 가하는 문제!
-----	--------------------

38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률 56% 정답 ①
-----------	-------------------	-----------------------

읽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5문단을 통해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과 6문단의 내용을 통해,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므로 외부광이 일반적인 빛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햇빛은 외부광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햇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OLED는 네 가지의 색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4문단을 통해 OLED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함을 알 수 있다.

③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낮아진다.

2문단을 통해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나타내는 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④ 아외 시인성은 사물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1문단을 통해 아외 시인성이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아외 시인성이 대상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OLED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

4문단을 통해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OLED가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이 글의 내용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형하였거나 여러 문단의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지를 만들어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최근 수는 문제에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일지 문제보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정보를 종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오답인 ③의 경우, 2문단을 통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나타내는 양'이 휘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높아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정답인 ①의 경우, 3문단을 통해 햇빛은 외부광이라는 사실을, 6문단을 통해 외부광이 일반적인 빛에 해당함을, 그리고 5문단을 통해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내용 이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이 글의 어느 부분과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으므로, 글을 읽을 때 주요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밑줄을 그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두면 밑줄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이 어느 문단에 있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

39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률 64% 정답 ②
-----------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아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3문단을 통해 스마트폰의 아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아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가 높아진다.

2, 3문단을 통해 암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화면이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③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명실 명암비와 암실 명암비로 나뉜다.

3문단을 통해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됨을 알 수 있다.

④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2문단을 통해 명암비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임을 알 수 있다.

⑤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 명암비가 낮아진다.

1문단을 통해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높아져서 명실 명암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01회] 2023학년도 3월 009

01회

[문제편 p.011]

예비 [고1] 국·영·수

반 배치고사+3월·6월 대비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고1] 3개년

3개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6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고1] 3개년 Light

학습 부담이 없고 가벼운 12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고2] 3개년

3개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6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고1·2·3] 영어 듣기

영어 듣기 문제만 화차별 구성

- 고1 영어 듣기
- 고2 영어 듣기
- 고3 영어 듣기

[고1·2·3] 영어 독해

영어 독해 문제만 화차별 구성

- 고1 영어 독해
- 고2 영어 독해
- 고3 영어 독해

[고3] 3개년

3개년 교육청+평가원 18회

- 국어(공통+화작·언매)
- 영어 영역
- 수학(공통+확률과 통계)
- 수학(공통+미적분)

[고3] 5개년

6·9·수능 평가원 기출만 15회

- 국어(공통+화작·언매)
- 영어 영역
- 수학(공통+확률과 통계)
- 수학(공통+미적분)

[고3] 화작·언매

3개년 21화+신출제 21회 [총42회]

-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고3] 8개년

6·9·수능 평가원 기출만 24회

- 국어(공통+화법과 작문)
- 국어(공통+언어와 매체)
- 영어 영역

미니 모의고사

하루 20분씩 가볍게 푸는 모의고사

- 고1 국어 영역
- 고1 영어 영역
- 고2 국어 영역
- 고2 영어 영역

▶ 구입 후 겹표지를 뜯어내고 사용하세요. 문제편과 해설편이 분리되는 것은 파본이 아닙니다.



정가 17,000원

리얼 오리지널 | 전국연합 학력평가 3개년 기출 모의고사 [고1 국어]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imprint라이 발행일 2023년 10월 19일 등록번호 제 2017-0022호

홈페이지 www.ipsify.com 대표전화 1566-9939 구입문의 02-433-9975 내용문의 02-433-9979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유경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혜민 임영선 김선영 물류관리 김소희 이혜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인쇄플라이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